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우창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던 시대가 가고, 지방의 여러 도시들이 독자적인 발전을 계획하게 된 것은 큰 사회적 진보를 나타낸다.

리가 없고 한적하게 살 수 있는 공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느낌의 핵심에 들어 있는 것은 도시가 짜임새 있는 삶의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닐까 한다.

견고 싶은 도시

얼마 전에는 목포에서 열리는 행사와 관련하여 영국 BBC 인터넷 판에 목포 일대를 답사한 기사가 실렸다. 시설이나 풍광에 대한 칭찬이 있었지만, 가볼만한 곳이 별로 없다는, 유료로 담은 견해도 나와 있었다.

느낌이 들지 않게 된다. 그것은 반드시 바둑판 모양의 길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닐까. 유럽의 고도(古都)들이 가변 도시의 중심부에 광장이 있고, 광장의 주변에는 시청이나 시의회, 또는 길드(상공업자 조합) 건물 또는 성당과 같은 것이 둘러 서 있다.

견고 싶은 도시

일마 전에는 목포에서 열리는 행사와 관련하여 영국 BBC 인터넷 판에 목포 일대를 답사한 기사가 실렸다. 시설이나 풍광에 대한 칭찬이 있었지만, 가볼만한 곳이 별로 없다는, 유료로 담은 견해도 나와 있었다.

느낌이 들지 않게 된다. 그것은 반드시 바둑판 모양의 길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닐까. 유럽의 고도(古都)들이 가변 도시의 중심부에 광장이 있고, 광장의 주변에는 시청이나 시의회, 또는 길드(상공업자 조합) 건물 또는 성당과 같은 것이 둘러 서 있다.

있는 삶의 제도를 느끼게 한다. 이것은 설명을 들어서가 아니라 건축 양식이나 건축 자료 등에서 또 전체적으로 놓여 있는 공간의 모양에서 저절로 전달되어 온다.

사람의 지각은 산천이나 도시의 구도, 건물의 생김새, 그리고 그 배치에서 고장에 뿌리박은 삶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짐작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보다 선명하게 지각하는 것은 주민보다 그 곳을 방문하는 이방인이지만, 거주민에게 그것은 마음 속 깊이에 잠겨 있는 귀속감과 삶의 안정감이 된다.

유럽의 고도에서 느끼는 삶의 터전의

유기적인 짜임새를 우리의 도시나 촌락에서 느낄 수 없다는 것은 불평할 수 있는 일도 아닐는지 모른다. 지금은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변화기이다. 정치나 사회의 조직, 사는 방식, 건축 모두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이다.

많은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새로 지은 많은 건물들은 지형에서 유리된 인공조형물일 뿐이다.

많은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새로 지은 많은 건물들은 지형에서 유리된 인공조형물일 뿐이다. 많은 지방에 지어진 행랭그림하게 크기만한 시설물들은 계획한 사람들이 동네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곧 알게 한다.

그 고장에 일이 있어 찾아온 사람을 주인이 손님으로 접대하던 곳이 옛 여관이다. 시골구석까지도 퍼져 있는 모텔들은 얼마나 다른가. 새로 생긴 소위 '무인텔'은 조그만 고장의 삶을 대표하는 건물이고 시설물이다.

사람들은 서로 보지도 않고 관계도 없이 지나쳐 갈 뿐이다. 지나쳐 가면서 돈만 던져 놓으면 된다. 우리의 도시에서 많은 것들은 이와 같이 지형이나 길거리나 삶의 유기적 질서에서 유리되어 완전히 따로 논다.

이것은, 되풀이하건대, 이 대전환기에 있어서 일어 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할 수 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공중에 들려 있는 거대한 구조물들을 토지에 내려앉게 하고, 우리가 사는 곳을 사람 사는 고장으로 만들어 가는 일이다.

거대 건축물과 종이 위의 계획이 아니라 삶의 빈자리를 채워 가는 것이 지금부터의 일이다. 그런 다음이면, 사람들은 우리의 도시에서 견고 싶은 거리를 발견하고, 볼 것이 없고 갈 데가 없다는 불평을 내놓지 않게 될 것이다.

<이화여대 석좌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또 연기된 나로호, 성공 발사세기 삼아야

한국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의 발사가 또 다시 연기됐다. 나로호는 애초 지난달 29일 오후 4시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 카운트다운 16분 52초를 남기고, 전자 부품에서 문제가 발견돼 발사가 중단됐다.

그만큼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것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우주발사체 발사에는 변수가 많다. 최종 점검에서 정상 작동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해도 갑작스런 경고음으로 발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날 나로호 발사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고흥군 우주발사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은 물론 성공 발사를 기원한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발사 연기와 원인, 재시도 시기 등 모든 과정이 러시아의 통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각에서 지난해 2차 발사 실패의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 3차 발사를 준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차 발사 실패와 지난 10월 26일 3차 발사 연기에 이어 또 한번 우주로 가는 꿈을 접어야 했다. 특히 전자 부품에 이상이 발견되면서 연내 3차 발사 재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문제를 일으킨 추력방향 제어기는 여유 부품이 2세트가 있지만 나로호를 조립동으로 옮기고 다시 발사대에 세우는 과정이 빗뚛해 발사 예정일(5일)내 발사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번 연기가 오히려 성공 발사 디딤돌이 되 나로호 발사 연기는 이번이 9번째다.

병·의원 토요 진료 휴무, 환자 불모는 안된다

대한의사협회에 정부에 수가(진료비) 결정 구조 개선, 전공의와 봉직의(고용 의사) 근무조건 개선, 총액계약제(연간 진료비 총액 상한제)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 토요일 진료 휴무를 강행했다.

지지 못하면 이 같은 시민 불만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병·의원의 신년인 다음달 5일 오후에도 일제히 병원 문을 닫고, 12일에는 종일 휴업,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진료 거부 등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는 시한 건강과 진료를 볼모로 한 병·의원의 토요일 진료 휴무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의 요구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극단적으로 맞서는 건 시민들에겐 이해관계로 비칠 뿐이다.

토요일 갑작스레 몸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어도 병·의원이 문을 닫았다면 치명적이지 않나. 맞붙이 부부의 경우 토요일 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자녀들의 예방접종과 진료, 치료 등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광주시의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날 진료 휴무에 참여한 지역 병·의원은 795곳 중 492곳에 이른다. 1차 휴무에는 휴무 참여율이 22%에 그쳤지만, 이번 2차 휴무는 62%로 크게 늘었다. 병·의원의 휴무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일부 병원에 환자들이 몰려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 휴무하는 바람에 문을 연 병원을 찾아 해매거나 진료하는 병원을 찾았더라도 환자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2시간을 넘기기도 했다.

의사협회는 진료 휴무를 즉시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휴무를 강행한다면 명분도 없고,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無等鼓

1592년 4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은 불과 20일만에 조선의 도읍지인 한양을 점령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맞출 수 없다는 조총(鳥銃)이라는 신무기 덕분이었다. 일본은 포르투갈에서 사들인 조총을 대량 생산해 조선 침략에 당시 수군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조선의 무기들과 국

경거리를 늘리고 명종들을 높은 별승자 총통, 청동으로 된 소승자총통 등 종류도 다양했다.

임진왜란 당시 전투는 '총통(銃筒)' 대 '조총'의 대결이었다. 조총은 명종들과 휴대성이 뛰어났지만,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각종 탄환을 발사한 중화기인 총통 역시 위력이 만만치 않았다. 천자·지자·현자·황자총통이 사용됐는데 왜군은 그 폭음과 화력에 놀라곤 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물리쳤던 '명량대첩'의 현장인 도 울돌목 해역에서 당시 수군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조선의 무기들과 국보급 고려청자들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특히 소승자총통(小小銃銃筒) 3점은 사료에도 없던 것이라 주목된다. 돌포탄인 석환(石丸)도 함께 발견돼 우리나라 무기 발달사와 해전 유적지인 전라수영의 역사적 성격을 밝혀주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시 조선에도 개인용 휴대 화기가 있었다. 총구에서 화약과 실탄을 장전하고, 손으로 약선에 불꽃을 점화하여 발사하는 승자총통(勝字銃筒)이 그것이다. 총신이 구부러진 차승자총통, 사

특히 소승자총통(小小銃銃筒) 3점은 사료에도 없던 것이라 주목된다. 돌포탄인 석환(石丸)도 함께 발견돼 우리나라 무기 발달사와 해전 유적지인 전라수영의 역사적 성격을 밝혀주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교적 도덕률이 지배했던 사대부의 나라, 조선 사람들은 칼보다

당시 조선에도 개인용 휴대 화기가 있었다. 총구에서 화약과 실탄을 장전하고, 손으로 약선에 불꽃을 점화하여 발사하는 승자총통(勝字銃筒)이 그것이다. 총신이 구부러진 차승자총통, 사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법조칼럼



조영호

살면서 될 수 있는 한 멀리해야 할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아내가 우스갯소리를 했다. 하나는 병원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라며 필자의 표정을 살폈다. 왜냐고 물으니 그곳에서는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자기 이름도 없이 환자, 피고, 원고로 불린다고 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다. 과거보다는 친절해졌다고 해도 병원이나 법원 가는 일은 아직도 고역이다.

필요 없이 건강하고 법원에 출입할 만한 분쟁이나 송사를 겪지 않고 지낼 수 있다면 그 또한 행복한 인생일 것이다.

하던 일을 멈춰 세상을 잊고 자신을 충전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이 법원에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취미는 분쟁의 불나방이어서 잠시 벗어나 숨을 쉬면서 한 발짝 멀러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한다.

병원에 가면 없던 병도 생기는 것 같고, 법원의 소환장을 받아든 후에는 발갓도 없어지고 소화가 잘되지 않으며 잠도 오지 않는다고 한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병원에 갈

법원을 직장으로 삼는 법관에게도 직업이 주는 압박과 고단함이 크다. 분쟁해결이 직무인 법관은 어쩔 수 없이 분쟁의 한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다. 법관은 분쟁이 몰고 온 상처 난 가슴, 깨어진 감정, 적대감, 불신, 무지, 헛된 욕심 등에 그대로 노출돼 영향을 받는다. 분쟁에 직면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습습함을 경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동료 판사의 권유로 합창 연습을 하고 있다. 연말 행사로 조그만 음악회를 개최하고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쓴다 고 하니 용기를 내 참가하게 됐다.

병원에 가면 없던 병도 생기는 것 같고, 법원의 소환장을 받아든 후에는 발갓도 없어지고 소화가 잘되지 않으며 잠도 오지 않는다고 한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병원에 갈

형사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굳이 알 필요 없는 인간의 극단적인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밖에 없다. 만약 교사가 됐다면 희망에 차고 순수한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한평생을 살 수도 있었련만, 끔찍한 범죄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범죄의 양을 저울질하고 혹시나 모를 남용된 권력의 그림자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 그리 윤택한 일은 아니다.

반복되는 뻘뻘한 일상에서 벗어나 조금은 새롭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작용한 듯하다. 초등학교 시절 잠시 교내합창단에 속해 있었던 것이 필자 음악경력의 전부이고, 바쁜 시간에 틈을 내 연습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여럿이 소리를 내어 고운 화음을 만들어 내는 신기함에 힘든 줄을 모르겠다. 처음에는 소리 내는 것 자체가 어려웠지만, 자주 연습하다 보니 음정도 익숙해지고 성량도 너적해진다. 모든 구성원이 웃으면서 열중하다 보면 연습시간이 금방 지나

<광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판사>

기고



고대석

세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집중적인 관심과 기대를 가지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대부분은 처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누군가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

신기술 인증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필요성

품질 경우 20% 이상 신기술 우수제품 인증을 받은 신기술인증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첫 출시된 제품에 대해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기술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와 기술개발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2012년 상반기 전남도의 공공 구매액은 2조 1400억원으로 그중 95%(2조 300억원)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였고, 그중 신기술인증제품을 포함한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중소기업 제품 중 물품구매 목표액 4134억원 중 1700억원으로 제품 구매액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에 첫 출시되는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보살핌 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 신기술인증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으로 등록하여 최소 3년 동안 공공구매, 전시회, 상담회 등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구매대상이 동일한 제

신제품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하여 완성품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자본과 시간이 투자된 독자적인 신기술 우수제품을 개발하여 철저한 제품평가를 받았더라도 그 제품의 실용성을 높일 수 있는 판로가 없으면 곧 빛이 바래고 말 것이다. 결국 인적·물적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제품이 사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기술 인증제품 기업의 70% 이상이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충남 이북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열악한 전남도의 여건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노력은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고 할 것이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은 서로 상생 발전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간 101조가 넘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야말로 어느 시장보다도 매력적인 곳이다. 신기술인증제품 구매가 기업에게는 안정된 수요처로 자리매김하고 공공기관입장에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이끄는 촉매제로 작용한다면 더할 나위гүй 없을 것이다.

토종과일 '이동식 소포장' 늘려 소비 촉진시키자

고향이 무안이다. 현재 부모님과 오빠가 함께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에 몇 가지 제안해본다.

기술표준원이 2012년 9월 현재 인증신제

것을 깎아서 먹기 좋게 담아 소포장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한때 일본의 생필품 생산방식에 있어서 축소지향형이라는 말을 붙여 쓴 적이 있다. 가전제품이든, 혹은 일상용품 무엇이든 첨단화시키고 작게 만들어 휴대하기 편하고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을 일컬어 그렇게 부른 것이다.

우리 과일은 국내에서 먹는 양도 한계가 있고 수출도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요즘은 소포장이 인기이고 도시의 커피도 테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돌아다니면서 먹는 게 대세인 점을 감안해서 우리 과일로도 '이동식 소포장'을 유행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아침 일찍 가는 수험생, 직장으로 출근하는 아빠들, 운전하느라 식사가 여의치 않은 버스과 택시기사들, 그리고 열차나 버스를 타고 멀리 가는 여행객들 누구나 쉽게 사서 먹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당장 사과 한 개를 사도 칼이 없으면 깎아 먹기 불가능하고 설사 칼이 있어도 어디서 그걸 깎아 먹으면서 돌아다니겠는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작은 게 참 용이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과일가격 이야기를 하

요즘 마트에에는 그나마 이렇게 깎아서 파

는 소포장 과일이 좀 나와있기는 하다. 그런데 그중에는 외국산 과일도 적잖다.

그러니 우리 토종 과일을 이렇게 깎아서 소포장으로 파는 걸 유행시키자는 것이다.

연인들이 데이트하면서 벤치에 앉아 요지로 쿡쿡 찍어 먹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소비가 늘어나다 보면 도시인들이 건강에 안 좋은 커피보다 과일일을 먹는 게 유행이 될 수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농가에 아주 큰 이득이 될 것이다.

▲정순례·광주시 북구 대촌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재무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F A X 220-551>
정경부 2200-612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조사부 2200-57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3	기획사업국 2200-53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